

# 올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Pastor: Rev. Simon, Seungsoo Oh  
편집: 본당 편집회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 사순 제2주일 (2025년 3월 16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필리 3,21)



The Transfiguration (Part) 1520, by Raffaello Sanzio, Vatican Museum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와 함께 르네상스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라파엘로의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그의 그림에는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우아함과 숭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작품 상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두 팔 벌린 예수님의 모습은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은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루카 9,29)



# 1. 시작 기도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본당 설정 50주년 기념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당신의 교회를 살피시는 하느님 아버지,  
본당 설정 50주년을 맞는 저희 본당 공동체에 주님의 축복을 내리소서.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한인 성당, 저희 공동체는 미국이라는 이국땅에서 가톨릭 한인 공동체를 꾸려 왔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공동체의 신앙과 사랑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채우면서  
공동체를 꾸려 왔습니다. 50주년을 맞는 지금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창조 때 세상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해주시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저희는 한인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한국 순교자의 신앙에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가꾸어 왔습니다.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강인한 순교 영성은 이국땅에서 저희들의 삶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순교 성인들의 강인함을 본받아 저희는 공동체를 잘 지키고 가꾸었고,  
앞으로도 그 모습을 이어가겠다고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이시간 함께 다짐해 봅니다.

주님, 사랑과 일치와 공동체를 가꾸어 나아가려는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저희로 하여금 주님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식탁에서 받은 사명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성찬의 식탁에서 받은 은총을 가난한 이웃들과 기꺼이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저희 본당 공동체의 모든 가정에도 항상 함께하시어 거룩한 주님의 성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저희 본당 모든 교우들이 영원한 생명에도 함께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시작 성가로, 가톨릭 성가 116번 ‘주 예수 바라보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116 주 예수 바라보라 사순



▶ SCAN ME



1. 주 예수 바라 보 라 정 성 된 맘-으 로 거  
2. 만 왕 의 왕 인 예 수 면 류 관 이-라 야 당  
3. 주 예수 지 고 가 신 십 자 가 보-아 라 우  
4. 이 세 상 하 직 할 때 내 맘 에 오-시 어 수



룩 한 머 리 위 에 피 땀 이 흐-르 며 지  
신 의 머 위 에 마 땅 하 시-거 늘 영  
리 사 언 행 위 로 잘 못 한 모-든 죄 부  
난 의 은 혜 로 써 위 로 해 주-시 며 자



존-한 주 의 몸 예 상 처 가 득 하 다 목  
성-한 가 시 관 을 어 이 해 쓰 셧 나 내  
겹-게 내 려 늘 러 피 립 게 하 도 다 불  
비-하 신 성 부 께 데 러 가 주 소 서 십



석-과 같 은 자 야 눈 물 도 없 느 나  
죄-를 통 회 하 여 닦 우 처 고 치 리  
자-가 품 에 안 고 평 안 히 쉬 소 서 다

##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목표를 향한 달음질

(필리 3,20-4,1)

형제 여러분, 20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21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4,1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

(루카 9,28-36)

그때에 28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29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30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31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32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33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34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35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36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자신을 버리고”** (마르 8,34) 말씀으로 기도하며,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서 제 자신을 버리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만남 안에서 수많은 생각이 생겨나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매일 매순간 내 자신을 버리는 공간만큼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평화로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AA2]
-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마르 8,35) 말씀으로 기도하며, 이는 단순히 내 목숨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바칠 만큼 힘껏 노력하면 하느님께서서는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며 내가 어려운 일에 맞닥뜨릴 때에도 결코 나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AA2]
-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루카 2,20) 말씀으로 기도하며,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CT]
- **“여든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루카 2,37) 말씀으로 기도하며, 한평생을 하느님께 헌신한 신실함을 잘 보여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인내의 삶, 매일 기도하는 생활은 종교적 관습을 넘어 하느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삶의 교훈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T]
-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루카 2,25)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 자신은 나약하고 지혜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NV2]
-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루카 2, 30)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하느님께서서는 각자의 신앙생활 안에서 일깨움을 주시고 또 시야를 넓혀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기도 안에서 진실되게 나 자신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NV2]
-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루카 2,35) 말씀으로 기도하며,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나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기쁨이 되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NV2]
- **“주님의 법에 따라”** (루카 2,39) 말씀으로 기도하며, 일상 안에서 일을 해 나가면서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지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리는 결정이 나의 뜻에 따른 결정이기보다 하느님의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NV2]
-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루카 2, 30)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당신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NV3]

-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루카 2,25)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심을 잊지 않고 일상 안에서 주님의 구원을 떠올리며 살아야겠습니다. [NV3]
-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루카 2,22)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의 신앙의 첫 발걸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던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RC2]
- “놀라워 하였다.” (루카 2,31) 말씀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성모님께서 보신다면 기쁨으로 놀라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RC2]
-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루카 2,40) 말씀 안에서 저 자신과 제 아이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느님의 총애를 받고 있으며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RC2]
- 한 달간 살아갈 말씀으로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루카 2, 30)를 기억하며, 우리 반모임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RC3]

##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10.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람이시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활 성가 셀라책 371번 ‘하느님의 음성을’ 1절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SCAN ME

# 하느님의 음성을

# 371

시편 40



1.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자 - 기 - 도 하 면 귀 -  
2. 주를 의지하 - 고 교만 하 지 않 - 으 - 며 거짓



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신 다 - 네  
에 치우치지 아니 하 - 면 복이 있으리 - 라



깊은 웅덩이 - 와 수렁에 서 건져 주시고 나의  
하느님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 주 - 라 그의



발을 반석위에 세우시어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 하여 - 주시네



노 래로 - 부르 자랄 라라 - 하느님 께 올릴 찬양을 새



노 래로 - - - 부 르 - 자 하느 - 님 - 사랑 을 새 을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본당 설정 50주년 기념 기도 봉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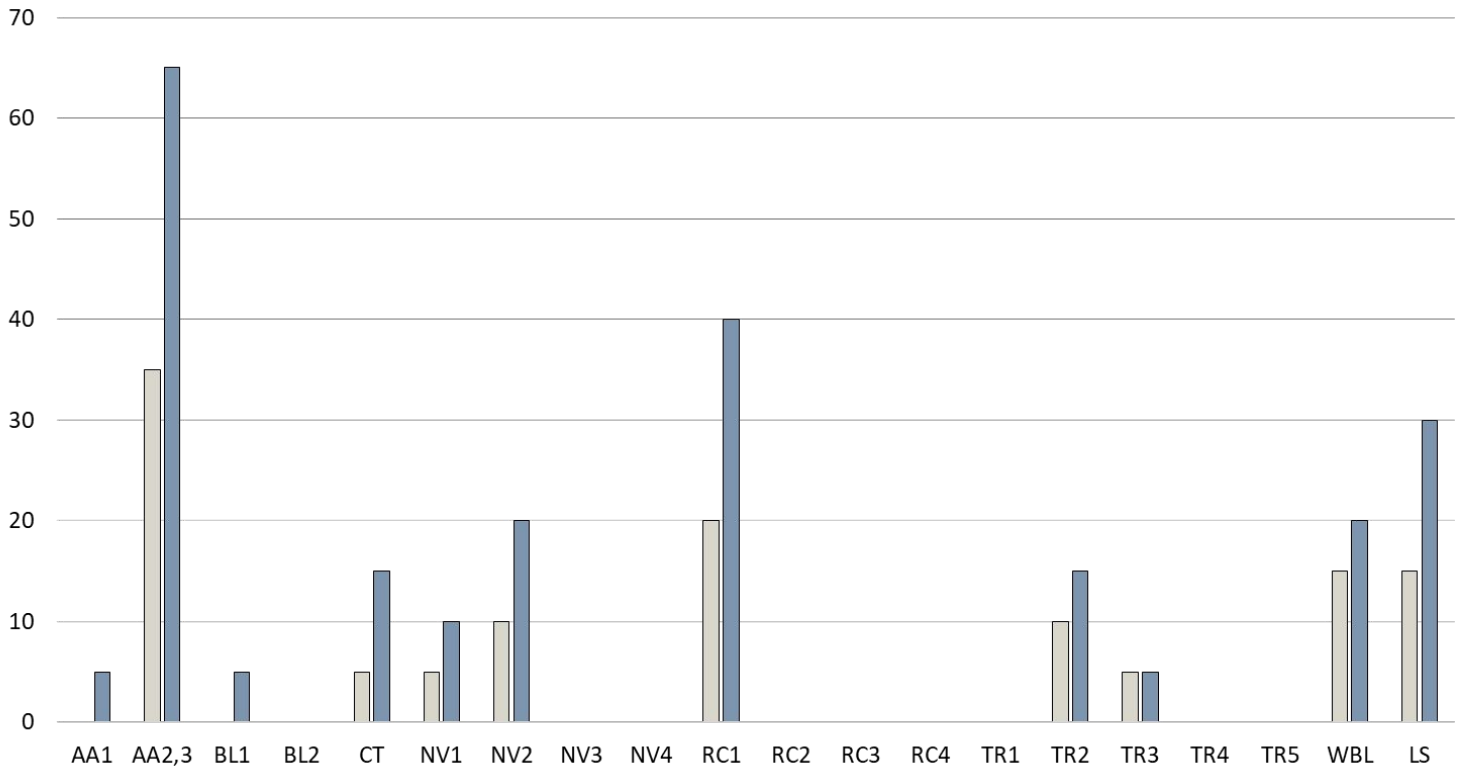
	미사봉헌	목주기도 (단)	본당50주년 기념기도문	영적묵상 (시간)	화살기도	사제를 위한 기도	수도자를 위한 기도	선행
FEB 2025	72	2700	248	22.4	267	200	180	74
누적합계	191	4494	685	141.4	1020	654	613	111



## 2025 성경공부 및 성경잔치 역사서 말씀과 함께

### 반별 숙제 제출 현황

- 판관기, 룯기
- 누적



매달 통독 분량을 공부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개인별로 제출하시면 반별로 취합하여 숙제 한 건당 5점씩 반별점수로 11월에 열리는 성경잔치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정해진 양식의 종이로 제출하시는 경우 사무실 교육부 트레이로, 파일로 제출하시는 경우 홍세훈 교육부장 이메일(sehoon9224@gmail.com)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 일상 밖의 특별함이 일상의 은총이 되어주는 여정, <성지순례>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과달루페 순례 때에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교우분들과 동행했던 인솔자 성 베드로 여행사 김동윤 비오입니다.

소개해 드린 대로 저는 성지순례를 원하시는 분들께 여정을 소개해 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순례하는 걸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살을 취하셔서 발 딛고 사셨던 이스라엘로, 때로는 초대교회와 바오로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 튀르키예/그리스로, 또 어느 날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에 가장 큰 조력을 하신 성모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성모발현지로...

모든 교우들이 항상 꿈꾸며 바라는 특별한 여정이 저에게는 사실 일상이나 다름이 없는 셈입니다. 저와 함께 순례하시는 분들 중엔 제게 같은 성지를 너무 자주 다녀서 큰 감동은 없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지순례가 일상인 것처럼 보이는 제가 성지순례가 가진 그 특별한 감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일 주일 새벽,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모여서 안내해 드리고 함께 항공기에 탑승했던 어느 팀들과는 다르게 이번엔 혼자 순례객 분들께 나누어드릴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항공기에 올랐지요. 델러스를 경유해 디트로이트 웨인 카운티 공항에 도착한 저를 몇 년 만에 처음 본 신부님께서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성격이 워낙 외향적이라 처음 뵈는 분들 앞에서도 긴장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번 팀은 사전 준비 모임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어떤 분위기의 팀인지 몰라 2월 3일 새벽 첫 미팅을 하던 공항에선 어찌나 떨리던지요.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니 그런 걱정도 그날 공항 주변에 쌓여있던 눈처럼 녹아 없어졌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저는 순례팀 안에 빠르게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었지요.

그렇게 순례길을 함께 하다 보니 동행하는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혹은 현재 어떤 삶의 여정을 걷고 계시는지 들을 기회도 많았습니다. 한 아이의 아با이기도 하지만 아직 젊은 저에게는 그 말씀들이 참으로 귀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해 오시면서도 늘 꼭 잡은 두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함께 행복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있다면 눈을 반짝이시며 이것저것 물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어느 정도 잘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잠시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2025. 2. 3 순례 1일차, 과달루페 성당 미사



2025. 2. 4 순례 2일차, 순교 복자 수녀원



지난 4박 5일의 여정은 여러분들께는 성모님을 만나는 행복한 여정이었겠지만 제게는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함께하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간다는 이유로, 인생이 분주하고 힘겹다는 이유로 많은 경우 우리들의 인생 여정 옆에서 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분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때로는 배우자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또 어느 때는 내 앞에 놓여 있는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눈앞에 와 계시는 그 분을 가리곤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집을 떠났듯이,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떠났듯이, 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앞두고 광야로 나가 기도하셨듯이 우리 역시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조용한 곳으로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자 길을 나섭니다. 그 특별한 여정 안에서 우리는 복잡하고 힘겹기만 한 줄 알았던 우리의 일상의 순간들이 얼마나 은총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도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은 순간이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디트로이트 교우분들과 함께한 이번 순례도 저에게는 제가 지금 누리는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축복의 시간이며 은총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다시 없을 감동의 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여정에 초대해 주신 시몬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함께 해주신 교우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5년 2월 어느날  
한국의 작은 도시에서  
순례 인솔자 김동윤 비오 드림



2025. 2. 5 순례 3일차, 출몰라, 치유의 성모 성당



2025. 2. 5 순례 3일차, 산토 도밍고 성당 미사



2025. 2. 6 순례 4일차, 테오티와칸 유적지



2025. 2. 7 순례 5일차, 과달루페 성당 미사



# 2025 성경 공부

## 판관기 롯기 말씀과 함께

판관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탈출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느님의 권능과 한없는 자비와 무소불위의 전지전능을 충분히 경험한 민족입니다. 떠돌아다니던 광야 생활과 달리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하느님께 전심으로 의지하던 마음가짐에서 벗어나 풍성한 수확에 꼭 필요한 햇빛과 비를 준다고 믿던 타민족들의 신을 그들처럼 믿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판관기에 흐르는 이야기의 맥을 나에게로 옮겨 봅니다. 뒤늦게 시작한 신앙생활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넘치게 받았다고 느낍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깨달음’에 전율할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고 ‘이 깨달음을 절대 잊지 말고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야지’하고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만큼의 시간이 흐른 후 되돌아보면 그 옛날 판관기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당장의 내 생활에 필요한 그 무엇에 다급하여 소중히 간직하고 실천해야 할 깨달음을 살짝 뒤로 밀쳐 놓는 나를 봅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깨달음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장처럼 내 안에 박혀서 내가 억지로 밀쳐 놓을지라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자비인가 봅니다. 깨달음과 실천 사이에서 일어나는 끈질긴 갈등은 기도를 통해서 상당히 완화된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기도 많이 매달리게 됩니다. 기도가 나를 판관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해 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 글 | 박영선 데레사

여호수아가 죽고 그 뒤로 주님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업적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왔습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신들을 따르고 경배하고 저희 조상들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빨리도 벗어났지만, 주님은 판관들을 세우시고 판관과 함께 계시어 그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판관이 죽으면서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자기들의 완악한 행실과 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판관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여러 판관들의 이야기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그 나약함을 방패로 삼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인식하기도 전에 다양한 우상에 빠져들지만 그래도 그 우상을 인식한 순간 주님께 얼른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늘 반복되는 저의 모자람 속에서도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저이기를 희망해 봅니다. — 글 | 김혜림 크리스티나

가나안 정착 후 주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반복적으로 타락, 이민족에게 넘겨지고, 회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주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왜 이민족을 깨끗이 몰아내 주시지 않아 분란의 씨앗을 남겨놓으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시련 속에서 구원의 길을 함께 주신 것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인으로 살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도 아울러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이번 달 통독에서 크게 느낀 점 두 가지는 첫째, 타락해서 죄를 짓지만, 진정으로 뉘우치면 주님의 자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엿봅니다. 왜 주일마다 미사에서 참회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형식적 참회가 아닌 진정한 뉘우침이어야 합니다. 둘째, 신앙인으로서 맹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시련과 구원을 모두 준비해 두신 주님의 큰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한편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립 된 인간으로 양육하기 위해 시련과 구원을 대비하셨듯이 부모도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도록 돕고 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 글 | 이태화 요한비안네

판관기에서는 가나안 정착에서부터 왕정이 세워지기까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의 주도 세력이 되어가는 과정과 이를 주도한 지도자들의 업적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롯기에서는 이민족 여인인 며느리 롯이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마음을 다해 정성껏 모십니다. 롯은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이며 이민족 여인에 불과했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롯이라는 이 이민족 여인에게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며 이끌어 가는 분은 하느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롯이라는 이 이민족 여인의 삶의 태도를 보며 나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 글 | 방성원 로사

**“주님, 당신의 원수들은 모두 이렇게 망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판관 5,31)

가나안 땅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의 신앙 안에서 하느님 없는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방종할 수 있는지, 그럼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느님의 인내와 사랑은 실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나에게 바라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투정하고 길 잃고 방황할 때마다 주님은 항상 떠오르는 해처럼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느님이 바라시는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잘못을 뉘우치며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참회의 길을 열어 주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느님께 다가가는 ‘당신이 사랑하는 이’, ‘떠오르는 해와 같은 흔들림 없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판관 6,18) — 글 | 박지선 카타리나

**“자, 각자 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남편들과 나에게 해준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에게 자애를 베푸시기를 빈다… 시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저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겨레에게로 돌아가렵니다.”** (룻 1,8-10)

아들들이 다 사망해 버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 이방인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은 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를 향한 축복은 아름답고 지혜롭습니다. 또 며느리의 마음은 절실하고도 아름답습니다. 룻은 자신이 이민족 출신이긴 하지만 민족을 뛰어넘어 시어머니와 함께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폐쇄적인 종교가 아닌 누구에게든 열려 있고 동시에 그들을 보듬어 버리는 보편적인 종교를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연이어 나오는 구원자와 보아즈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도 룻을 식구로 받아들이는 이야기는 단순히 관습을 따른 것 같지만, 깊은 사랑과 배려가 전해집니다. 이렇게 함께 만들어진 공동체 속에서 삼대를 거쳐서 다윗 임금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칭송하는 다윗 임금은 모압 여인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여인을 받아들였기에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이방인을 제쳐 놓지 않으시고 끌어들이고 품어서 새로운 세상을 이어가십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나의 신앙은 얼마나 열려 있으며, 보편적인가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가운데 두고, 그 관계 속에서만 오픈된 것은 아닌가? 제가 정해 버린 나름의 테두리 속에서만 보편성을 내세우지는 않는가?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닮고자 하는 저는 계속해서 마음을 열고 넓은 세상을 안아 보고자 합니다. — 글 | 김은숙 데레사

판관기를 읽고, 기드온이 그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판관으로 선택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일상생활이나 공동체에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냥 하느님 앞에 나와 있으려는 작은 시도도 주님께서 이끄시고 채워주시면 주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런 기드온을 통한 하느님의 모습에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약점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고통과 허물 뒤에는 더 큰 하느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에서 삶이 ‘살아갈 만한 은총’이라 여길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룻기를 읽고,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묵상하며 내려놓는 연습,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느님의 것이라고 의식하며 사는 연습을 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보아즈의 모습에서 저도 누군가에게 배려와 관심으로 고엘의 역할을 실천해 보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작은 호의와 관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 글 | 최승원 엘리사벳

두려움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존재를 확인하며 당신이 함께하심을 보여 달라고 하는 기드온은 저의 삶과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두려움은 제가 갖고 있는 교만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주어진 상황이 제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저의 나약함이 드러날까 조급할 때 그렇습니다. 조건을 걸며 끊임없이 제가 선택받은 사람임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즉 고통이나 실패가, 제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그저 저의 삶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을 뿐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제 뜻이 이루어지길 바랐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찌면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단한 저의 고통은 언제나 저를 갈등하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해 봅니다. 늘 제 눈이 당신께 머무르게 하시고, 제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게 하소서. 제가 주님의 도구가 되길 기도하고, 선택된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긴 터널의 끝에 빛이신 주님 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실지 제가 아닌 주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제가 신앙인으로서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타인의 시선이 아닌 당신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심을 잊지는 않으나, 저와 함께하심에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고통 중에도 늘 당신을 찾게 하시고,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당신이 이루어 주셨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 글 | 이수연 안젤라



# 2025 성경공부 및 성경잔치 역사서 말씀과 함께

역사서 말씀을 함께 통독하고 공부하여 성서에 대한 깊이를 더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당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대상 : 전신자
- ◆ 성경공부 기간 :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 ◆ 성경잔치 날 :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 매달 통독 분량

월	성경 역사서 통독 분량	신부님 성서공부 강의 녹음파일 분량
1월	여호수아기 총 24장	62~65 (개론) 66~70 (여호수아기 본문)
2월	판관기 총 21장 & 룻기 총 4장	71~75 (개론) 76~80 (판관기 본문) & 82~87 (룻기 본문)
3월	사무엘기 상권 총 31장	88~90 (개론) 91~100 (사무엘기 상권 본문)
4월	사무엘기 하권 총 24장	101~108 (사무엘기 하권 본문)
5월	열왕기 상권 총 22장	108~118 (열왕기 상권 본문)
6월	열왕기 하권 총 25장	119~127 (열왕기 하권 본문)
7월	에즈라기 총 10장	143~145 (에즈라기 본문)
8월	느헤미야기 총 13장	146~150 (느헤미야기 본문)
9월	토빗기 총 14장	151~152 (토빗기 본문)
10월	유딧기 총 16장 & 에스테르기 총 10장	152~TBA (현재 진행 중인 강의)

- ◆ 공부 방법 : 개인 또는 그룹으로 매달 분량을 통독 공부하고 개인별로 내용 정리 해서 숙제 제출 / 그룹은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나 숙제는 반별로 취합 / 숙제 한건 당 5점 부여해서 반별로 점수 누적 / 매달 반모임지에 누적 점수 공지
- ◆ 숙제 제출 방법 : 정해진 양식의 종지로 제출하는 경우 사무실 교육부 트레이로,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홍세훈 교육부장 이메일 sehoon9224@gmail.com 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까지 제출